

인도 점유 '주차 장사' 판치는데...구청은 뭐하나

광주 구도심 주차장들

보행 방해 불법영업 극성

작년 적발 한 건도 없어

11일 오후 1시30분께 광주시 동구 충장로 A주차장 앞 인도. 행인들이 갑자기 인도를 치고 들어오는 차량에 놀라 이리저리 피해야 했다. 발레파킹(주차 대행)에 나선 A주차장 직원들이 불법 '인도 주차' 영업을 하고 있는 탓이다.

인도와 차도 경계에는 차량 진입

을 막는 구조물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다. 다른 승용차 운전자들이 주차장에 접한 인도에 차를 정차라도 할라치면 직원들은 "당장 차를 빼달라"며 소리를 높였다. 이 주차장 앞에서 한 승객이 택시를 잡으려 하자, 주차장 직원들은 "길을 비켜 달라"고 요구했다.

광주시 동구를 비롯한 구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공유지인 인도에 주차를 해주고 돈을 받는 '봉이 김선달'식 주차장들이 판을 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주차장에 고객의 차량이 가득 차면, 시민불편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주차장 앞 인도에까지 주차를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

한 시간 주차비만도 무려 2000원이다. 동구 충장로·금남로 등지에 밀려 있는 불법 '인도주차' 업소는 대략 수십 곳에 달한다.

운전자 정보(37)씨는 "이들 업자는 인도가 마치 자기 주차장인양 사용할 뿐만 아니라 1~2분 가량의 주차도 아예 못하게 한다"며 "시민 안전과 불편은 기본이고, 공유지를 돈벌이에 이용하는데도 구청이 단속하지 않는 이유가 뭘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불법 영업을 버젓이 극성 차량이 가득 차면, 시민불편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주차장 앞 인도에까지 주차를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

주차장 업주들이 차량 진출입구를 내리고 구조물을 파손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구청이 인력난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도 불법 영업을 불쑥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가 지난해 적발한 인도 불법주차 단속 건수는 모두 1만9635건 중 170건에 불과했다. 이중 '봉이 김선달'식 불법 영업을 하는 주차장에 대한 단속건수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속 의지가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구 단속반이 단속 차를 타고 이들 업체 앞을 지나가면서도

적발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들 업체와 무연의 거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귀찮아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의 구심을 사게 하고 있다. 특히 일부 시민들은 공유지인 인도 주차 영업을 단속은 기본이고, 이 영업에 따른 이익도 지자체로 환수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 동구 관계자는 "단속을 하려고 하면 금방 눈치채고 차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 뒤, 단속이 끝나면 또다시 불법 영업을 일삼는다"며 "단속인력이 부족하지만 해당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강력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lee@kwangju.co.kr

광주도심 유희 공간 5곳 '물과 나무의 공원' 조성한다

광주시가 도심 내 빈 공간을 물과 나무가 있는 '소생태계 공원(물의 공원)'으로 조성한다.

광주시는 "오는 2016년까지 도심 유희(빈) 공간 5곳 이상을 조류·곤충 등 소생물이 사는 도심 소생태계 복원사업인 '물의 공원' 조성사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물의 정원'은 소생물 서식 공간과 시민 휴식 공간으로 나눠 조성된다. 생물서식 공간에는 빗물 등을 이용한 습지로 조성해 수생정화식물과 습지 주변 고목, 초목류를 심어 소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시민 이용 공간에는 정자(승터)와 발달그늘 등 시설해 소생물 생존 공간 복원과 저탄소 친환경 공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까지 남구 주월동 장산초교 인근 빈 공간내에 1293㎡ 규모의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생태계 보전협력금 반환금(2억5000만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인근 금당산 중앙공원과 폐선부지 푸른길 공원 사이로, 소생태계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단절됐던 녹색공간 2곳이 연결되고, 주택가 주변 자투리 땅이 자연생태계 공간으로 활용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심 내 훼손되거나 유희·방치된 공간을 생태적으로 복원해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다양한 생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장소로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휴식처로 제공할 것이다"고 밝혔다.

시는 첫 사업으로 오는 4월~11월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건전한 졸업식으로 학교폭력 추방을 광주 동구청·동부경찰·동부교육지원청 공무원들이 17일 광주 서석초등학교 앞에서 건전한 졸업식 뒤 풀이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 동구 제공)

빛공해 방지 조례

광주시의회 의결

내달 1일 공포 시행

오는 3월부터는 빛으로 인한 시민건강과 생활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광주시는 인공 조명의 오남용으로부터 시민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광주시 빛공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오는 3월1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례에서는 조명기구의 범위,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설치,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및 그에 따른 절차, 조명기구 정비 지원, 시의 책무와 시민의 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기준이 없어 경쟁적으로 설치·사용된 조명 기구들에 의한 빛공해를 광주시 차원에서 환경오염으로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됐다.

빛공해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채희중기자 chae@



광주-유베이스 콜센터 투자협약 광주시는 17일 시청 비즈니스홀에서 유베이스 허대건 대표이사와 500억 규모의 콜센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유베이스는 수도권에 삼성전자와 현대카드, G마켓, 옥션 등 60여개 기업 9300억 규모의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중앙 4개기관 검사능력 숙련도 평가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최고 등급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3년 연속 검사능력 최고 등급을 받으며 전국 최우수 연구기관의 명성을 이어 갔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식품첨가물 검사 등 6개 분야 ▲질병관리본부 주관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검사 등 5개 분야 ▲국립환경과학원 주관 먹는 물 검사 등 7개 분야 ▲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 소해 면상버섯 1개 등 총 19개 분야 112개 항목이다.

평가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하고 분석결과와 신뢰성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평가 분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식품첨가물 검사 등 6개 분야 ▲질병관리본부 주관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검사 등 5개 분야 ▲국립환경과학원 주관 먹는 물 검사 등 7개 분야 ▲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 소해 면상버섯 1개 등 총 19개 분야 112개 항목이다.

검사능력 숙련도 평가는 중앙기관에서 시험·검사기관에 대해 측정능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광주 생산·수출도시 자리 굳혔다

광주시가 전국을 대표하는 생산·수출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통계청의 2013년 지역경제동향'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공업생산지수 증가율은 전국 평균(-0.1%)이 하라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는 6.8%를 기록했다.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 가운데에서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에서는 충북과 경기도에 이어 3위였다.

이명박 정부 1년차인 2008년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은 광공업 생산 증가율을 보였던 광주시가 민선 5기 4

작년 광공업생산 증가율

6.8%로 특·광역시중 1위

취업자 증가 전국 2위

수출 12.3%↑ 전국 3위

년을 거치면서 3위로 경총 뛰어 오른 것이다. 광공업생산지수는 광업·제조업·전기가공업 등의 지역별 생산 활동을 가능하는 대표적인 경기상황 지표다.

이와 함께 광주의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율도 3.4%로, 충남(7.7%)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은 1.6%에 불과했다.

수출 증가율에서도 광주의 활약이 돋보였다. 광주는 자동차와 반도체 등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개칭 이래 가장 높은 159억달러를 달성했으며, 증가율도 12.3%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중 3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지난해 전국 평균 수출 증가율은 2.1%에 그쳤다.

특히 광주는 지난해 마지막 4분기만 놓고 보면 자동차와 전자부품, 통신분야의 수출 상승 등에 힘입어 전국 최고의 수출 증가율인 18.1%를 기록, 올해의 수출 전망도 밝게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올해 전 세계적 경기 불황에도 수출 목표액을 193억 달러로 정했다.

이 밖에 지난해 광주의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도 전국 평균과 같은 전년 대비 1.3%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했다.

광주는 지난해 11월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3년 가계 금융·복지조사'에서도 가구소득 전국 4위, 가구 저축액 전국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빈곤도를 가늠할 수 있는 광주시민의 가구당 평균 부채는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적었다. 광주시민의 가구당 소득과 저축액은 높은 반면 부채 규모가 작다는 것은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그만큼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www.guemyoung.co.kr

이웃 갈등 원인 해결!!
충간소음 방지 바닥재
오리지널 영국 제품
인스타레이

국내최초 경량,중량 충격음 기준통과

충간소음 전용 바닥재 InstaLay

주택시공기준: 경량충격음 58dB이하, 중량충격음 50dB이하
수인한도기준: 주간 40dB이하, 야간 35dB이하

뛰어난 열전도성,충간 중량 충격음 방지,다양한 바닥재 연출, 알맞은 쿠션기능으로 피로방지 및 내구성보장되는 새로운 개념의 신기술 - 바닥재 시스템

NAVER 충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바닥재

강화마루, 온돌마루, 모노층, 데코타일(직사각형), 데코타일(정사각형)

전국 시,군,구지역 대리점 모집
문의전화 062-575-9082

입학문의 ▶ 062)605-1114, 1027

2014 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신입생 추가모집】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학 과	모집인원
인문	○	신 학 과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	사회복지상담학과	○
		유 아 교 육 과	○
사범	○	음 악 학 과	○
		(피아노, 성악, 현악, 관·타악, 지휘, 오르간, 작곡, 클래식기타, 교회음악)	○
예능	○	실용음악학과	○
		(드럼, 기타[포크, 일렉],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
총 계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4. 2. 21(금) ~ 2. 24(월)
 · 전 형 일 : 2014. 2. 25(화) 오후 2시

■특별전형 · 전학과 : 지역인재양성 전형

www.kwangshin.ac.kr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지사로 36